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박 서 영¹⁾

박 성 연²⁾

Cheah, Charissa S. L.³⁾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3-7세 유아와 어머니 190쌍이었다.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고,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상관관계 분석 및 SAS를 이용한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아의 어머니는 삶의 만족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였으나, 남아의 어머니는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유능성간에도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남아의 경우 긍정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위축행동을 적게 나타내었으나, 여아의 경우는 공격적 행동을 적게 나타내었다. 셋째,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남아의 경우는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높은 경우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며, 여아의 위축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설명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여아의 사려깊음 행동과 사회성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 삶의 만족감, 양육행동, 사회적 유능성

1)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아동학 석사 (E-mail : 0171450@hanmail.net)

2)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아동학 연계/협동과정 교수, 심리학과 교수

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I. 서론

최근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진정한 의미는 객관적인 복지조건과는 달리 주관적인 복지와 안녕(well-being), 즉, 삶의 만족이다. 삶의 만족감이란 지금의 상태에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가 하는 판단과 함께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서의 정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성취도와 기대감 등 종합적인 심리, 정서, 인지적인 안정감과 만족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인지적으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을 때, 주관적인 삶의 만족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Mannell & Dupuis, 1996; Ryff & Keyes, 1995; 김명자, 1989; 양옥경, 1994).

삶의 만족감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로는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둔 연구(Franklin, 1996)가 있는가 하면, 자기 수용감,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환경적 통제감 등 심리적 안정성을 요인으로 보는 연구(Ryff & Keyes, 1995)도 있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감의 하위영역으로 의식주와 같은 매우 기본적인 것부터 사회적 관계망, 심리적 상태 및 삶의 철학에 이르는 지극히 추상적인 것까지 여러 영역에 걸쳐 삶의 질, 삶의 만족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양옥경, 1994; 최진원, 2004).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감을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어머니의 주관적 복지감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관계망 및 대인관계 영역(양옥

경, 1994), 심리적 안녕감 및 정서적 영역(최진원, 2004), 그리고 인지적,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 영역(최진원, 2004)을 삶의 만족감의 하위영역으로 보고자 한다.

예상할 수 있듯이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한편, 개인주의 사고방식이 팽배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한 어머니 개인의 복지와 삶의 만족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행동을 예측해 주는 선행변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편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을 뿐, 어머니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개인적, 심리변인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특히 본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삶의 만족감은 정서와 인지가 함께 혼합된 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나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 및 일에 대한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의 정서상태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경험한 우울한 정서의 부모들은 덜 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Belsky & Pensky, 1990). 또한 Bettes (1988)는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는 유아에게 민감하게 대하지 못하였고 덜 적절한 상호작용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개인내적 변인인 심리적 복지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Abidin(1992)의 ‘스트레스 모델’에서도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양육행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 심리적인 안녕감이나 만족감이 양육행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부모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이 나타나고, 양육행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Abidin, 1990).

한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양육행동의 선행변인으로 어머니의 개인적 심리변인이나 인지 및 정서적 상태의 안정성과 만족감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우울감, 정서상태, 또는 양육스트레스 등 구체적이거나 단편적인 변인으로 양육행동을 예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인지적이며 심리적인 상태를 통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삶의 만족감이나 양육행동 및 이 둘 간의 관계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자녀의 성은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지각하는 방식이나 부모가 아동에 대해 갖는 기대나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로 인해 부모의 심리적 만족감도 차이가 날수 있으며, 부모가 아동을 다루는 방식이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부모들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더 권력 행사적이거나 체벌을 더 많이 사용하며, 더 통제적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곽혜경, 김암이, 장미자, 한유미, 2005; 곽혜경, 조복희, 1999; 이경남, 2001). 한편, 남혜순(2003)의 연구에서

는 어머니들이 여아를 양육하는 것보다 남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가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의 차이는 남아와 여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동의 여러 발달 측면은 부모, 특히 어머니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Belsky (1984)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도나 결혼만족도 등 심리적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모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은 물론, 사회적 경쟁성 및 독립심을 양성시키기에 필요한 양육행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가 지지적, 온정적, 반응적일 때 아동은 다른 아동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에게서 경험했듯이 긍정적인 행동을 예상하며, 따라서 친근하고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Jacobson & Willy, 1986; Waters, Wippman & Sroufe, 1979). 그러나 부모로부터 자주 거절을 경험했거나 일관성 없는 양육을 경험했던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절 또는 지배적 행동을 예상하기 때문에 사회관계에서 쉽게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Waters & Sroufe, 1983; Erikson, Sroufe & Egeland, 1985).

그러므로 온정적, 수용적, 설명적, 일관적 행동을 포함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 관계가 있다. 반면에 거부적, 강압적, 통제적인 행동을 포함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이 또래에게 거부되는 정도나 낮은 사회적 유능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Baruch & Bernet, 1981; Turner & Harris, 1984; Putallaz, 1987; Rohner, 1991).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Nelson, Hart, Wu, Yang, Roper와 Jin (2006)에 의하면, 어머니의 같은 양육행동이라 할지라도 아동의 성에 따라 사회적 행동에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은 여아의 행동억제나 고립적이고 수동적인 행동과 상관이 있으며, 겸손한 행동과는 부적 상관이 있으나, 남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지시적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여아는 행동억제를 더 많이 나타낸 반면에, 남아는 어머니가 지시적 양육행동을 할 경우, 고립적이거나 수동적인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에 있어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 본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감의 하위영역(예: 사회적 관계망, 인간관계 내에서의 만족감, 우울, 정서상태, 심리적 복지감 등, 개인내적 심리변인)을 단편

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을 중심으로 세 변인간의 관계를 예측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관계망,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련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지원은 어머니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나 민감성 및 온정성, 그리고 안정적 애착형성 및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등 바람직한 양육행동 특성과 관련되었으며,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Crockenberg & McCluskey, 1986; 도현심 · 김지신, 1997; 신숙재, 1997).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결혼만족도(전현진, 1997) 역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성연(1992)에 의하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아동의 능력발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능력발달 수준은 높았다.

심리적 복지감 및 정서적 영역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계 및 양육행동의 매개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Goodman과 Brumley(1990)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문제를 지닌 부모의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강압적인(coercive)상호작용을 경험하는 한편,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위축되고, 사회적 기술발달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어머니의 정서성은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Abidin(1992)의 이론에 의하면,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부모의 심리적인 복지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신숙재, 1997). 나아가 자녀의 성에 따른 상호작용도 나타나 특히 남아에 비해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사용하여, 여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신숙재, 1997).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경제적 위기로 인한 스트레스 연구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Elder와 동료들(1984)의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버지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남아보다 힘이 약하고, 몸집도 작은 여아에게 집중되었다.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거의 없어 이들 변인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명확히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삶의 만족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의 성에 따른 발달적 경로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이 남아와 여아의 사회적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발달적 경로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지식 및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가정으로부터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3~7세 사이의 유아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의 어머니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아동 중 남자는 98명(51.6%), 여아는 92명(48.4%)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많았으며 아동의 평균연령은 51개월($SD=11.8$)이었다.

한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5세였으며, 이들의 41%가 대학졸업자였고, 연구대상 어머니의 58%가 전업주부였다.

2. 조사도구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에 관한 문항은 Ryff와 Keyes(1995)가 제작한 심리적 복지감 척도(The 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PWB) 18문항과 Pavot와 Diner(1993)가 제작한 삶의 만족감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의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PWB는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는 척도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정서적으로 느끼며 인지하는 복지감의 수준을 나타내며, SWLS은 모든 삶의 영역들을 통합하여 전반적인 삶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각 영역들에 대한 삶의 만족감과 함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통찰을 통한 만족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두 척도를 모두 사용하였다.

PWB는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 Being)의 6개의 하위영역을 각각 3문항씩으로 측정한다. 6가지 하위영역은 자율성(autonomy), 환경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자기 수용도(self-acceptance)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성’은 삶에 대한 자신의 자발적 의지와 자신감, 자율적인 행동을 뜻한다. ‘환경통제력’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성과 조절 및 통제감을 의미하며, ‘개인적 성장’은 삶에서 계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는 주변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며, ‘삶의 목적’은 삶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자기 수용도’는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함께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한 만족감을 뜻한다.

SWLS는 5문항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에 대한 내용으로 “나는 내 삶에서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가졌다.”, “내 삶의 대부분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유사하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의 6점까지 Likert식 6점 척도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PWB의 전체 신뢰도는 $\alpha = .82$ 로 나타났다. 또한 SWLS의 신뢰도는 $\alpha = .86$ 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동을 둔 어머니들에게 중요시된다고 판단되어지는 5가지 범주의 양육행동(온정성, 설명적, 자율성촉진, 심리적 통제, 과보호)을 정하고, Wu, Robinson, Yang, Hart, Olsen, Porter, Jin, Wo와 Wu(2002)가 제작한 양육행동척도(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 Questionnaire & Parenting

Practices: PSDQ)중 온정성, 설명적, 자율성 촉진 양육방식을 나타내는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Olsen, Yang, Hart, Robinson, Wu, Nelson, Nelson, Jin과 Wu(2002)가 제작한 심리적 통제 및 과보호 양육행동척도(The Psychological Control & Overprotective /Intrusive Measure: PCOIM) 83문항 중 심리적 통제와 과보호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7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PSDQ 각 요인 즉, 온정성 요인, 설명적 요인과 자율성촉진 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alpha = .80 .81 .70$ 으로 나타났다. 또한 PCOIM로 측정된 심리적 통제와 과보호 양육행동의 신뢰도는 $\alpha = .90$ 과 $.88$ 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으로 판단되어지는 4가지 범주의 사회적 행동(사려깊음, 사회성, 공격성, 위축)을 정하고, Goodman(1997)이 제작한 28개 문항의 사회적 유능성(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SDQ-P)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어머니가 관찰하여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거쳐 Scree plot과 Eigen 수치에 근거하여 요인 수를 4개로 지정한 후, Varimax Rotation을 통하여 요인부하량이 .40이상이며, 다른 요인에 이중으로 부하되지 않은 20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1, 2, 3, 4 각 요인은 그에 포함된 문항내용을 기초로 각각 사려깊음, 사회성, 공격성 및 위축으로 명명되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3점까지 Likert식 3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추출된 SDQ-P의 사회적 유능성 각 요인의 신뢰도는 $\alpha = .67 \sim .74$ 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2006년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3주 동안 실시하였다. 자료는 6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어머니들에게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약 일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19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55.1%였고, 그 중에서 연구에 부적절하거나 미완성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19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한편,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서는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로 각 변인간 또는 각 하위 요인간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삶의 만족감이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2.0 Program과 SAS 9.1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변인들의 모든 통계적 유의도는 $p < .05$ 이하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III. 연구 결과

1.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 및 성차

표 1.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

(N=190)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어머니의 양육행동				
	온정성	설명적	자율성 촉진	심리적 통제	과보호
전체 아동	.08	.15*	.16*	.07	.10
남 아	-.05	.07	.15	.06	.01
여 아	.27*	.27*	.18	.09	.20

* $p < .05$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양육행동 중 ‘설명적’ 양육행동($r=.15,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또한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r=.16, p<.05$)과도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높을수록 설명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 여 아동을 나누어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아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양육행동 중 ‘온정성’ 양육행동

($r=.27, p<.05$), ‘설명적’ 양육행동($r=.27,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남아에 대한 양육행동과는 관련이 없는 반면, 여아에 대한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삶의 만족감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여아에게 온정적이고 설명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및 성차

남, 여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온정

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상관관계 (전체아동)

(N=1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사려깊음	사회성	공격성	위축
온정성	.28**	.38**	-.16*	-.08
설명적	.28**	.35**	-.16*	-.18*
자율성 촉진	.20**	.36**	-.13	-.13
심리적 통제	.24**	.03	.10	.14
과보호	.07	-.03	.04	.13

* $p < .05$, ** $p < .01$

성' 양육행동과 '설명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려깊음' 행동(모두 $r=.28, p<.01$) 및 '사회성' 행동(각각 $r=.38, p<.01$; $r=.35, p<.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공격성' 행동(모두 $r=-.16, p<.05$)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설명적' 양육행동은 '위축' 행동($r=-.18, p<.05$)과도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자율성 촉진' 행동 역시 아동의 '사려깊음' 행동($r=.20, p<.01$)과 '사회성' 행동($r=.36, p<.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려깊음' 행동($r=.24, p<.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과보호'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각 요인들과 전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온정성', '설명적',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은 높은 '사려깊음'과 '사회성'을 보인다. 또한 '온정성', '설명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은 공격적 행동을 덜 보이며 설명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은 '위축'행동을 덜 보인다. 한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인 '과보호' 양육행동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적 유능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할수록 아동은 '사려깊음' 행동을 나타냈다. 한편 남아 여아 각각에 따른 차이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사회적 유능성

남아의 경우, 표 3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성'과 '설명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려깊음' 행동(각각 $r=.31, p<.01$; $r=.27, p<.01$) 및 '사회성' 행동(각각 $r=.40, p<.01$; $r=.35, p<.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설명적 양육행동은 '위축' 행동($r=-.23, p<.05$)과 부적

표 3. 남, 여 아동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비교 (N=190)

성별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사려깊음	사회성	공격성	위축
남아	온정성	.31**	.40**	-.07	.00
	설명적	.27**	.35**	-.06	-.23*
	자율성 촉진	.29**	.40**	-.08	-.21*
	심리적 통제	.31**	.18	.17	.10
	과보호	.24*	.04	.20	.20
여아	온정성	.22*	.35**	-.27*	-.19
	설명적	.31**	.38**	-.27*	-.11
	자율성 촉진	.08	.29**	-.17	-.02
	심리적 통제	.15	-.19	.03	.19
	과보호	-.12	-.11	-.11	.06

* $p<.05$, ** $p<.01$

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자율성 촉진’ 행동 역시 ‘사려깊음’ 행동($r=.29, p<.01$)과 ‘사회성’ 행동($r=.40, p<.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위축’ 행동($r=-.21, p<.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행동과 ‘과보호’ 행동은 ‘사려깊음’ 행동(각각 $r=.31, p<.01$; $r=.24, p<.05$)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남아의 경우 온정성, 설명적, 자율성 촉진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심리적 통제나 과보호 양육행동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 또한 높을수록 남아의 ‘사려깊음’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남아의 ‘사회성’ 행동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온정성, 설명적,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난 반면에, 남아의 ‘위축’ 행동은 어머니가 설명적이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양육행동을 할수록 덜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의 ‘공격성’ 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여아의 사회적 유능성

여아의 경우, 표 3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성’ 및 ‘설명적’ 양육행동은 ‘사려깊음’ 행동(각각 $r=.22, p<.05$; $r=.31, p<.01$) 및 ‘사회성’ 행동(각각 $r=.35, p<.01$; $r=.38, p<.01$)과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내었으나, ‘공격성’ 행동(각각 $r=-.27, p<.05$; $r=-.27, p<.05$)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은 여아의 ‘사회성’ 행동($r=.29, p<.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과 ‘과보호’ 양육행동은 어떠한 사회적 유능성의

요인과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온정성’, ‘설명적’,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사회성’ 행동을 많이 나타냈으며, 여아의 ‘사려깊음’ 행동은 긍정적 양육행동 중 ‘자율성 촉진’ 행동을 제외한 어머니의 ‘온정성’, ‘설명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여아의 ‘공격성’ 행동은 어머니의 ‘온정성’, ‘설명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적게 나타난 반면에 ‘위축’ 행동은 어떠한 양육행동과도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세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표 4에서 나타나듯이 전체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어머니의 ‘설명적’ 양육행동($r=.15, p<.05$) 및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r=.16, p<.05$)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또한 아동의 ‘사회성’ 행동($r=.18, p<.05$)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관계는 그 어느 것도 서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어머니의 ‘온정성’ ($r=.27, p<.05$) 및 ‘설명적’ 양육행동($r=.27, p<.05$)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위축’ 행동($r=-.21, p<.05$)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전체아동과 여아만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표 4.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N=190)

어머니 삶의 만족감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온정성	설명적	자율성 촉진	심리적 통제	과보호	사려 깊음	사회성	공격성	위축
전체	.08	.15*	.16*	.07	.10	.13	.18*	-.02	-.13
남 아	-.05	.07	.15	.06	.01	.14	.18	.12	-.07
여 아	.27*	.27*	.18	.09	.20	.13	.18	-.18	-.2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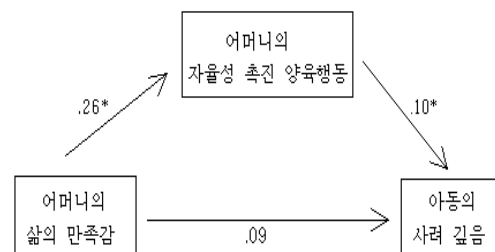
표 5.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자율성 촉진 양육 행동과 아동의 사려깊음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

매개요인	회귀계수	se	t	p
a path				
자율성 촉진	.26*	.12	2.17	.03
b path				
자율성 촉진	.10*	.05	2.28	.02
c path				
총효과	.14*	.06	2.41	.02
c' path				
직접효과	.09	.05	1.64	.10
모형적합도	R²	adj R²	F(df)	p
	.16	.15	11.52(3,179)	.000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변수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매개변수로 양육행동의 5가지(온정성, 설명적, 자율성 촉진, 심리적 통제, 과보호) 모두를 넣어 매개변수가 5개인 다중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하여,



* $p < .05$

그림 1.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자율성 촉진 양육 행동과 아동의 사려깊음 행동간의 경로 분석

결과에서 다른 변수에 비해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된 ‘설명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의 2가지 매개변수만을 활용하여 최종 모형을 구성하였다.

우선 그림 1과 표 5에 나타나듯이,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아동의 사려깊음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beta=.26, p<.05$), 이러한 어머니의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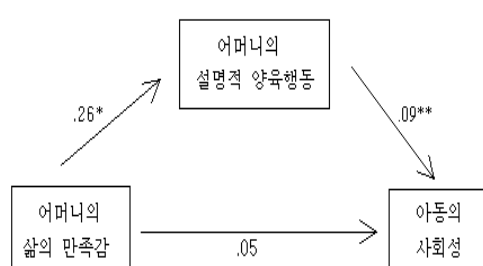
은 아동의 사려깊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beta=.10, p<.01$)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아동의 사려깊음 사이에서 어머니의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이 완전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설명적 행동의 경우, 그림 2와 표 6에 나타나듯이,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아동의 사회성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설명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beta=$

표 6.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설명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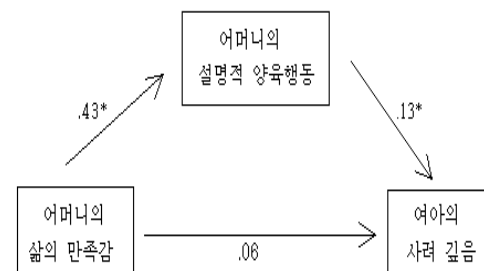
매개요인	회귀계수	se	t	p
<u>a path</u>				
설명적	.26*	.12	2.09	.04
<u>b path</u>				
설명적	.09*	.03	2.77	.01
<u>c path</u>				
총효과	.07	.04	1.81	.07
<u>c' path</u>				
직접효과	.05	.04	1.27	.20
	R^2	adj R^2	F(df)	p
모형 적합도	.09	.07	5.84(3,179)	.000

* $p<.05$, ** $p<.01$, *** $p<.001$



* $p<.05$, ** $p<.01$

그림 2.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설명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성 행동간의 경로분석



* $p<.05$

그림 3.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설명적 양육행동과 여아의 사려깊음 행동간의 경로분석

표 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설명적 양육행동과 여아의 사려깊음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

매개요인	회귀계수	se	t	p
a path				
설명적	.43*	.17	2.55	.01
b path				
설명적	.14*	.06	2.30	.02
c path				
총효과	.13	.08	1.67	.09
c' path				
직접효과	.06	.08	0.79	.43
	R²	adj R2	F(df)	p
모형적합도	.15	.12	5.00(3,84)	.00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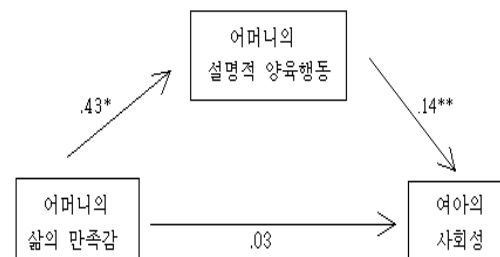
.26, $p < .05$), 이러한 어머니의 설명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beta = .09$, $p < .01$)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아동의 사회성 사이에서 어머니의 설명적 양육행동이 완전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여아만을 대상으로 매개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3과 표 7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여아의 사려깊음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설명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beta = .43$, $p < .05$), 이러한 어머니의 설명적 양육행동은 여아의 사려깊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beta = .13$, $p < .01$)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여아의 사려깊음 사이에서 어머니의 설명적 양육행동이 완전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림 4와 표 8에서 나타나듯이, 어머

니의 삶의 만족감은 여아의 사회성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설명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beta = .43$, $p < .05$), 이러한 어머니의 설명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beta = .14$, $p < .01$)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여아의 사회성 사이에서 어머니의 설명적 양육행동이 완전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p < .05$, ** $p < .01$

그림 4.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설명적 양육행동과 여아의 사회성 행동간의 경로분석

표 8.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설명적 양육행동과 여아의 사회성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

매개요인	회귀계수	se	t	p
<u>a path</u>				
설명적	.43 [*]	.17	2.55	.01
<u>b path</u>				
설명적	.14 ^{**}	.04	3.10	.00
<u>c path</u>				
총효과	.07	.06	1.19	.24
<u>c' path</u>				
직접효과	.03	.06	0.48	.63
	R ²	adj R ²	F(df)	p
모형적합도	.12	.09	3.82(3,84)	.01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러한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정을 검증해보고자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양육행동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높으면 어머니는 설명적이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

이 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경우 보다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가진 선행연구들을(Belsky & Pensky, 1990; Bettes, 1988; Abidin, 1992)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여아의 어머니는 삶의 만족감이 높으면 온정적이고 설명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지만,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양육행동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개인의 심리변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여아를 둔 어머니의 경우, 삶의 만족감과 온정적이고 설명적인 양육행동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여아보다 남아를 양육할 때 어머니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남혜순(2003)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다.

Rutter(1970)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때,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되며, 이것은 부모-자녀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다시 남아의 부적응행동을 야기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와 다르게 여아는 부모의 감정에 민감해서 부모의 우울이나 짜증을 유발시키는 행동은 피하지만, 이러한 여아의 민감한 기질은 또한 그들이 부모의 감정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남아와 여아의 기질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모는 성별에 따라 다른 기대와 양육방식을 취하며(곽혜경, 김암이, 장미자, 한유미, 2005; 곽혜경, 조복희, 1999; 이경남, 2001) 양육적인 면에서 여아들은 남아보다 애정을 더 많이 받는다(이영, 조연순 역, 1998). 더욱이 Elder(1979)에 의하면, 부모는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 더욱 지지적이고, 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서 이러한 양육태도가 여아에게는 완충적 역할을 하지만, 남아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머니의 만족감이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설명적인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은 남아의 경우보다 여아의 경우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가 느끼는 양육에서의 어려움은 남아와 여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특히 남아를 양육할 때에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변인보다는 남아의 기질적 특징에 의해 어머니의 양육행동

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한 가능성은 앞으로 기질적 특성을 포함한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및 성차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성, 설명적,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려깊음 행동, 사회성 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성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 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설명적 양육행동은 공격성 행동과 위축행동 모두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설명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은 공격적 행동을 적게 나타내며, 설명적 양육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위축행동을 덜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온정적이고 설명적인 양육행동이 공격성이나 위축행동을 낮춘다는 이전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공격성과 양육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Byrant & Crockenberg, 1980) 애정적, 합리적 지도행동은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어 적응을 도와주는 한편,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 부모의 태도는 설명적이지 않고 애정적인 지지가 없기 때문에, 자녀는 사회적인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좌절감을 겪고, 자아 가치감이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해 비우호적인 공격성을 발달시키게 된다. 한편 위축행동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민감하고 거부적이지 않고 적

절히 통제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억제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박성연, 2003; Belsky et al., 1991; Engfer, 1993; Rubin, Stewart, & Chen, 1995)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온정성, 설명적,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을 할수록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며, 위축행동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아동을 살펴본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결과이며 선행연구들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양진숙, 1991; 권연희, 2003; 박주희, 2001; Byrant & Crockenberg, 1980; Cohen, 1990; Dekovic & Janssens, 1992).

반면, 특이한 점은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성, 설명적, 자율성 촉진, 심리적 통제, 과보호의 모든 양육행동에서 사려깊음 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에는 심리적 통제와 과보호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도 사려깊음 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강압적인 방식의 양육이 아동의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통제행동은 강압적 행동과 다를 수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그 발달적 결과도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처벌적, 거부적 특성이 강한 서구에서의 ‘권위주의적 행동’과는 다르기 때문에 강

압적, 또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또는 심리적 통제가 다른 방식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나 ‘심리적 통제’ 행동에 대한 보다 정교화 된 개념정의를 통한 양육행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강압적인 통제 방식은 여아의 사회적 행동과는 관계가 없었으나 남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용서 받기 위하여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보상하기’ 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난다는 결과(최지현, 2001)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남아들의 경우, 부모들이 대개 강압적인 태도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계하기 때문에, 이러한 훈계를 많이 받은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통제적인 양육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최지현, 2001).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해 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나 과보호가 오히려 남아의 사려깊음 행동을 가져오지 않았는지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여아의 경우 위축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남아는 위축행동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를 지각할 때에 여아의 위축행동보다 남아의 위축행동을 더욱 부정적하다고 판단하며(최지현, 2001), 남아들이 나타내는 수줍음에 대해서는 의존적이고 미성숙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한다(Engfer, 1993)는 점에 비추어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녀차별의식이 강했고 지금도 사

회전반에 걸쳐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성역할 행동을 기대하기에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문화적인 기대에 적절한 행동을 자녀에게 격려하고(Hoffman, 1977)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문화적 가치에서 지지되는 성역할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여아들에게서 나타나는 위축행동보다는 남아들에게서 나타나는 위축행동에 대해 더 많은 우려를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모는 남아의 위축행동에 대해 보다 설명적이며 자율성을 촉진시켜주는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함으로써 남아의 위축행동을 개선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축행동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위축행동에 대한 부모의 차별적인 가치나 태도로 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및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 매개효과 검증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설명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촉진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아동의 사회성 행동과도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 만족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하며 아동의 사회성 역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남, 여 아동을 나누어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

감과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온정적이고 설명적인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또한 위축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높을수록 여아에게 온정적인 행동을 보이며, 여아의 위축행동도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양육행동과 남, 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매개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설명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며 그로 인하여 여아는 높은 사회적 유능성을 나타내어, 사려깊은 행동과 사회성 행동을 높게 나타낸다. 즉, 여아를 둔 어머니는 삶의 만족감이 높은 경우, 어떤 상황에 대해 딸에게 원인과 결과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며, 아동을 도와주거나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서 왜 안 되고 왜 용납되는 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행동은 여아의 사회성, 사려깊음 행동 즉, 높은 사회적 유능성 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Eisenberg (1998)과 Hoffman(1963a, 1963b)의 연구에서 부모가 벌을 주는 행동보다는 애정을 갖는 따뜻한 태도와 귀납적인 태도,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배우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동의 사회적인 발달에 중요하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왜 좋지 않은가’라는 이유를 아동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일수록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최성숙(1996), 최순자(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아에 대한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개인변인인 삶의 만족감 보다는 다른 변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남아는 여아보다 기질적으로 활동성이 높으며, 적극적이기 때문에 과잉행동, 인내력 부족, 주의산만, 불안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Baruch & Barnett, 1981). 따라서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 삶의 만족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남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남아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남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은 온정적, 설명적, 자율성 촉진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삶의 만족감은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서 어머니의 설명적인 양육행동과 함께 온정적이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긍정적 양육행동이 중요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몇 가지의 제한점을 지닌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신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 또한 응답 자료의 회수율이 낮아 자료의 편파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이 어머니의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하여 주관적인 판단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긍정적 방향으로 대답하고자 하는 오류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심층면접이나 아동에 대한 직접 관찰 혹은 교사의 판단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에서 본 연구는 어머니 개인 심리변인인 전체적인 삶의 만족감이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아동의 성에 따른 발달적 경로의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이나 양육행동에 양방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혜경, 김암이, 장미자, 한유미 (2005). 3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통제책략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1, 259-282.
- 곽혜경, 조복희 (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 통제 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5.
- 권연희 (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 (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혜순 (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김지신 (1997). 사회적지지 및 부모역할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 박성연 (199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능력발달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사회과학논집, 61(2), 305-329.
- 박성연 (2003). Korean mothers' proactive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2003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 pp. 165-188.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옥경 (1994). 삶의 만족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회지, 24, 157-198.
- 양진숙 (1991).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내외통제소재와 또래괴롭힘의 관계. 대학원 논문집, 26, 317-331.
- 이영·조연순 역 (1998). 영유아발달. 서울: 양서원.
- 전현진 (1997).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숙 (199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도덕성 발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순자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만 3세에서 6세아의 도덕적 행동의 검토. 교육심리연구지, 16(3), 197-219.
- 최지현 (200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교육연구, 10(1), 133-146.
- 최진원 (2004). 유아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 척도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25(6), 385-396.
- Abidin,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 21(4), 407-412.
- Baruch, G., & Barnett, R. (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03, 79-103.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Eggebeen, D. (1991). Early and extensive maternal employment/child care and 4-6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ren of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83-1099.
- Belsky, J., & Pensky, E. (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s: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Hinde R. A. & Steven-Hinde, J.(Ed.).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p.193-217). Oxford, England: Oxford.
- Bettes, B. (198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ese: Temporal and intonational features. *Child Development*, 59, 1089-1096.
- Byrant, B., & Crockenberg, S. (1980).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prosocial behavior: A study of female siblings with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1, 529-544.
-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pp. 13-17).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ohen, J. (1990).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terloo, Ontario, Canada.
- Crockenberg, S., & McCluskey, M. (1986). Change in maternal behavior during the baby's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57, 746-753.
- Dekovic, M., & Janssens, J.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Eisenberg, N. (1998). The socialization of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D. Pushkar, W. M. Bukowski, A. E. Schwartzman, E. M. Stack, & D. R. White (Eds.), *Improving 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pp. 59-78). New York: Plenum.
- Elder, G. (1979). Historical change in life patterns and personality. In P. Baltes & O. Brim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2, pp. 117-159). New York: Academic Press.
- Elder, G., Liker, J., & Cross, C. (1984).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In P. Baltes & O. Brim(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Vol. 6, pp 109-158). Orlando, FL: Academic Press.
- Engfer, A. (1993). The inter-relatedness of marriage an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s. In R. A. Hind & J. Steven-Hinde(Eds.), *Relationship within families*, England: Oxford, 104-118.
- Franklin, A. (1996). Index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Blacks. In R. L. Jones(Ed). *Handbook of Tests and Measurements for Black Populations*. Vol. 2, Hampton, VA: Cobb and Henry Publishers.

- Goodman, R. (1997).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 Psychiatry*, 38, 581-586.
- Goodman, S., & Brumley, H. (1990). Schizophrenic and depressed mothers: Relational deficits in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1-39.
- Hoffman, M. (1963a). Childrearing practices and moral development: Generalizations from empirical research. *Child Development*, 34, 295-318.
- Hoffman, M. (1963b).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consideration for others. *Child Development*, 34, 573-588.
- Hoffman, M. (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2(8), 644-657.
- Mannell, R., & Dupuis, S. (1996). Life Satisfaction. In J. E. 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2, New York: Academic Press, 59-64.
- Nelson, L., Hart, C., Wu, B., Yang, C., Olsen, S., & Jin, S. (2006). Relations between Chinese mothers' parenting practices and social withdrawal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3), 261-271.
- Olsen, S., Yang, C., Hart, C., Robinson, C., Wu, P., Nelson, D., Nelson, & Jin. (2002).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al outcomes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B.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pp.235-2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Books.
- Pavot, W., & Diner, E. (1993). A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Rohner, R. (1991).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icut Press.
- Rubin, K., Stewart, S., & Chen, X. (1995).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619-700). New York: Wiley.
- Rutter, M. (1970).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responses to family stress. In E. J. Anthony & C. Koupernik (Eds.), *The child in his family* (Vol. 1, pp. 165-196). New York: Wiley.
- Ryff, C., & Keyes, C. (1995). The Structur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Turner, P., & Harris, M. (1984). Parental attitudes and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4, 105-113.
- Waters, E., & Sroufe, L.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Wu, P., Robinson, C., Yang, C., Hart, C., Olsen, S., Porter, C., Jin, S., Wo, J., & Wu, X. (2002).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mother's parenting of preschooler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 481-491.

1 차원고접수 : 2007. 04. 01.

수정원고접수 : 2007. 05. 27.

최종게재결정 : 2007. 06. 01.

Mother's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as Related to Child Social Competence

Park, Seo -Young^{*}

Park, Seong-Yeon^{*}

Cheah, Charissa S. L.^{**}

^{*}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 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life satisfaction,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social competence. A total of 190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completed questionnaire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1) Mothers who were satisfied with their life showed higher 'reasoning' and 'autonomy granting' parenting, especially to their daughters. 2)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on child's social behavior differed depending on child's sex. Specifically, mothers' 'warmth', 'reasoning' and 'autonomy granting' parenting were negatively related to boys' 'withdrawn' behavior and girls' aggressive behavior. 3) Only for girls,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life satisfaction and child's social behavior was mediated by maternal 'reasoning' parenting.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e study evinced that mother's life satisfaction was related to both parenting and child's social competence. In particular,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life satisfaction, parenting and social competence were stronger for girls than for boys.

Key words : life satisfaction, parenting, social competence